

공산당은 중국궐기의 근본 장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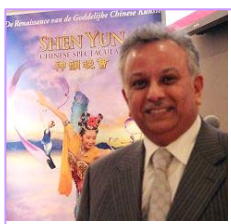
중공은 집권 이래 “계급투쟁”을 기본고리로 삼고 력차 정치운동을 일으켜 “사람잡이”에 날뛰었고 “총로선”, “대약진”, “인민공사”의 재난속에서 중국경제는 몰락의 변두리에 들어서게 되었다.

중공은 멸망의 운명을 만구하려고 부득불 “개혁개방”기치를 들고 “일부분 사람들이 먼저 부유해지자.”는 구호를 불렀다. 도대체 누가 “일부분 사람들”인가? 이 모호한 구호는 백성들로 하여금 이 “일부분 사람들”속에 자신도 들어있다고 여겼다. 실제로 유효한 감독권력이 없는 상황하에서 먼저 부유해진 사람은 권리를 틀어쥐은 사람들이었다. 통계에 의하면 억만부자의 90%이상은 고급간부 자제들이었다. 그들은 권력을 리용하여 결탁하고 탐오, 강탈, 사기로 부유해진 신행탐관오리들이다. 보통사람은 매인 평균재산이 400 달러도 안되며 노동자는 보편적으로 실업당했고 농민생활수준은 퇴보했으며 병치료, 주택구매, 학교다니기가 어려워졌다. 청조말기에 900 사람이 1 명 관리를 봉양했지만 오늘은 26 명 사람이 1 명 관리를 부담하고 있다. 목전 중국의 생태환경은 파괴되었고 독품, 기생, 혈액판매(卖血)가 성행되고 있으며 의

료, 위생, 교육, 사회보장 등 경비는 7.4%를 점하여 세계의 꼴지가 되었다. 국가수입을 본다면 중국 전쟁시기에는 총산지가 세계에서 27%를 점했지만 1949 년에는 5.4%로, 2003 년에는 4%밖에 안되었다. 일본은 전쟁후 폐허속에서 발달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15 년, 남한은 농업국으로부터 선진공업국으로 변하기까지 9 년이 걸렸지만 중국은 30 년을 거쳐서도 아직 빈곤의 모자도 벗지 못했고 단지 2 만억 재부를 소유한 몇천명 리익집단들이 생겨났을 뿐이다. 이리하여 빈부차별이 아주 커져 사회모순을 격화시켰다.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정확한” 중국공산당은 “3 개 대표”로 탈바꿈하고 나서 얻은 재부의 합리성과 합법성을 고취하고 있다.

보다시피 30 여년의 중국발전의 길은 중공권력자집단들의 궐기를 위해 펼쳐놓은 것이며 중국은 궐기하지 못했으며 중국인민은 여전히 어려운 생활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만약 중공이 해체되지 않는다면 중국은 절대 궐기할수 없다. 중공은 중국민족의 리익과 근본 대립되며 중국궐기의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신운(神韻)공연은 진정한 중국문화이다



미국 신운예술단(파룬궁학원으로 구성)은 지난 2 월 26 일 저녁 벨기에에서 처음 공연을 했는데 관중들로 초만원을 이루었다.사우디아라비아주재 벨기에 대사 Abadlah Mouallimi (윗 사진)는 <신운공연은 매우 아름다워 민심을 격동시켰으며 심도가 매우 깊으며 이전에 본 중국의 공연과는 현저히 다르며 차이가 매우 큼니다. 신운예술단의 공연은 진정한 중국문화를 대표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 중국령사관앞에서 파룬궁학원들 초불추모활동을 거행

금년 2 월 22 일 밤, 파룬궁학원들은 미국 로스앤젤레스령사관앞에 모여 련공했으며 초불로 중공에게 학살당한 대륙동수들을 추모했으며 중공이 정권을 탈취한 이래 수천만 중국민중들을 박해하여 죽인 죄행을 세상에 폭로했다. (아래 사진)



유엔에 교부된 파룬궁학원 실종안전보고

최근에 유엔에 중국파룬궁학원 실종안전보고서를 교부했다. 이 보고서에는 1999 년부터 2005 년까지 길림성, 흑룡강성, 료녕성, 산둥성, 하남성, 중경시, 북경시 등 각곳에서 실종된 20 명 파룬궁학원들이 수록되어 인권단체와 국제사회의 주시를 받았다.





새로 닦은 농촌길

산동성 모 향촌길은 걸어다니기가 어려웠다. 이 향촌의 파룬궁제자들은 서로 상론한 끝에 이 길을 의무로동으로 닦을 것을 결심했다. 반달이란 시간을 들여 향촌의 주요 구간을 닦았다. 마을사람들은 이 평탄하고도 넓은 길을 걸어다닐때마다 파룬궁제자들의 고상한 품격에 감동되어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이다. 공산당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탄압하고 박해하는 것은 좋은 끝장이 없다.>말했다.



큰 재난을 피면한 리할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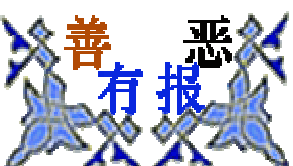
산동 서하시 사구진 모촌의 리할아버지는 금년에 62 세이다. 근 몇 년래 그는 신체가 허약하고 다병하여 경상적으로 일을 할 수 없었고 때로는 길을 걷기조차 힘들었다. 작년에 한 대법제자가 그의 집으로 찾아와 진상을 이야기 한 후, 그는 경상적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 은 좋다》를 외우기 시작하였는데 지금 그는 마치도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이 온몸에 힘이 솟구쳤다.

작년 10 월의 어느 한 점심시간, 리할아버지가 차에 옥수수대를 싣고 집으로 가고 있을 때 마을 앞 저수지 옆의 작은 다리 위에서 방향을 잘못 잡아 사람이 차 머리와 함께 다리 아래로 떨어졌다. 차 바구니는 반 공중에 걸려있었고 다리는 물에서 2 미터 남짓이 떨어져 있었다. 참으로 위태로웠다! 이때 한 사람이 리할아버지가 다리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꼭 인사불성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다리 위로 달려가 보니 리할아버지는 일어나고 있었는데 몸에는 한곳도 상한 곳이 없었으며 다만 허리를 조금 삐였을 뿐이었다. 리할아버지는 이틀간 휴식한 후, 종전처럼 일을 할 수 있었다. 그의 가족은 대법사부님이 생명을 구해준 은혜에 몹시 감격해 하고 있다. 그의 아내는 사람만 만나면 《파룬따파는 정말 좋아요!》라고 말한다. 이로서 리할아버지는 《파룬따파는 좋다》를 묵념하면 분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네 경찰의 부동한 운명

2007 년 상반기 어느 하루, 무한시파출소가 <모 사회구역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던 파룬궁학원을 붙잡았다.>는 제보전화를 받았다. 당직경찰은 사람을 붙잡기 싫어 가지 않으려고 했다. 새로 부임되어 온 3 명 경찰들은 <당신은 당직이고 경관인데 왜 가지 싫어하오? 당신이 가지 않으면 우리들이 가겠소.>라고 했다. 그러자 그 당직 상사는 <당신들은 과분하게 대해선 안되오.>라고 귀땀했다. 3 명 경찰들은 신화거리에서 다른 차와 부딪쳐 2 명이 즉사했고 1 명은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다가 죽었다.



이 일은 무한시경찰내부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선악에는 그에 따른 보응이 있듯이 어떤 사람은 파룬궁탄압에 앞장서서 악보를 받았고 일념지차에 대 재난을 가져왔다.



(런재 4)

중공의 멸망은 하늘의 뜻

온몸에 상처를 입은 산서의 검은 벽돌 공장 노예공→



10. 지금 노동자들은 실업당하고 농민들은 땅을 잃었으며 탐관들이 횡행하고 백성들이 살기 어려워도 그 억울함을 하소연할 곳이 없다. 중공은 이렇게 나라와 국민에게 해를 끼쳤으니 하늘이 용서할수 없다!



11. 근년에 중국에 천재(天灾)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2002 년 3 월에 한차례 큰 모래바람이 중국 북방의 10 개 성, 자치구, 직할시 휩쓸었고 영향 받은 인구는 1.5 억이나 된다.



12. 2001 년에 력사상 보기 드문 황충재해를 받았는데 그 면적이 15 개 성의 1.2 억무나 되어 1944 년 특대황충재해 면적의 2 배나 되었다.